

우리가 시작한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애하는 풀러 공동체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분들이 2018년 졸업 예배에서 있었던 시위에 대한 저의 입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비록 제가 이야기 할 많은 부분이 저와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 받은 흑인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소식이 아니겠지만, 풀러 공동체의 다른 분들은 제가 졸업 예배 직후에 보여주었던 것보다 더 충분하게 그 날에 대한 저의 입장을 나눠주기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시위가 있는 후 몇 주의 시간이 지났기에 이제 저의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졸업 예배를 위해 도착했을 때 저는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 가장 확실했던 감정은 풀러 졸업생들이 가족과 친구들과 둘러싸여 졸업식을 앞두고 특별한 졸업 행사의 날들을 시작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게 된 많은 훌륭한 학생들의 친숙한 얼굴과 그 학생들의 여정과 성취를 축하하기 위해 함께 한 제가 만나 보지 못 했던 그들의 “증인”인 가족과 친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졸업 예배가 열릴 에롤 번즈 몰(Arol Burns Mall)의 아름다운 세트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또 다른 감정은 감사와 향수에 젖는 것이었습니다. 에롤 번즈 몰은 오랫동안 우리 캠퍼스의 심장부였으며, 풀러의 역사 속에서 많은 중요한 순간에 집결의 장소였습니다. 다가올 아름다운 졸업 예배의 전조가 되었던 음악 리허설에 고무되어 교수진의 행렬을 따라 들어오면서, 저는 풀러의 충실한 삶과 소명의 많은 측면에 감사했습니다. 풀러는 결코 충분하지도, 완전하지도, 완성되지도 않았지만, 아직 시작하신 일을 끝내지 않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붙들리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 속에 얽혀 있던 또 다른 감정은 몇 달, 몇 년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심적 고통이었습니다. 풀러에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알려지지 않고, 가치가 인정 받지 못 했다고 느꼈던 아프리카 아메리칸 학생들과 그들과 비슷하게 느낀 사람들과 가졌던 대화가 주었던 감정입니다. 풀러의 고위 행정 직원들과 교수진은 학생들의 고통, 필요, 요구 사항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많은 아프리카 아메리칸 학생들은 여전히 너무 부족하고 너무 느린 조치에 불만과 화를 표했습니다. 그러는 와중, 학생들은 아프리카 아메리칸 교수진이 풀러를 떠나는 것을 지켜 보았고, 이것은 학생들이 희망의 거점을 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졸업식이 있던 주의 월요일에 행정 직원과 교수진 그룹은 아프리카 아메리칸 학생들과 길고 격렬한 미팅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의 인내심은 바닥이 나고 있었고 변화에 대한 결심은 높아졌습니다.

목요일, 파사데나 아침의 영광 속에서 에롤 번즈 몰에 앉아 있으면서 앞서 말한 감정들과 함께 저는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다음의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a) 우리의 흑인 학생들과 교수진들이 풀러의 모든 분야에서 아프리카 아메리칸을 대표하는 이야기와 목소리가 부족한 것으로부터 느끼는 분노, b) 아프리카 아메리칸 학생들과 다른 사람들이 졸업 예배에서 시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경고, 그리고 c) 많은 졸업생들, 가족들, 친구들에게 시위가 기쁨의 날에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방해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위자들은 수술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서 있었고, 그 후 더 많은 시위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현수막을 들고 나와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회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설교자였던 환 마르티네즈(Juan

Martínez) 교수는 시위에 대한 설명과 이의 상징과 행동에 대한 해석을 설교에 포함했습니다. 교수는 연대를 표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고, (제가 모두 알고 있는) 시위자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저는 그들의 용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 순간에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변화의 필요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시위자들 중에는 졸업생들도 있었고, 그들은 그날을 성스러운 날로 보내기로 결심한 듯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느끼는 감정은 풀러가 아프리카인 학생들, 친구들, 동반자들, 그리고 교수진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기관 내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풀러는 아프리카인 학생들이 번창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 사고, 학문, 리더십, 형성, 그리고 영향력은 풀러의 깊고, 중요하고, 영구적인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프리카인 학생들이 주는 선물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풀러가 직면하고 있는 변화를 내면화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단지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풀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대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졸업 예배를 떠나면서 시위자들의 마음 뿐만 아니라 다른 졸업생들,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의 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예배는 하나님의 삶과 우리 삶의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과 세상에서 권력을 재정비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종종 우리를 불편한 곳으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졸업 예배는 매년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합니다. 다른 분들이 아프리카인 학생들의 시위로 인해 불편했고 화가 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열망하는 공동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촉구하는 뜻으로 그 시위를 받아들입니다. 많은 면에서, 졸업식 주간은 풀러의 모든 이들에게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한 주였습니다. 성취한 일을 축하하면서도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크 래버튼 총장 드림